

## 충남 문화관광 분야의 전망과 과제

김경태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 I. 거시적 관광환경의 변화와 전망

#### 1) 국제적 사회·문화 교류 증대

국제적 환경변화는 세계화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국가주권이나 영향력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경제, 문화, 관광분야에서 국가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교류는 증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간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화, 기술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의 차이로 부각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산업, 기업, 지역, 고용, 소득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 등 문화 여가비용과 관련이 깊은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지식 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으로 서비스산업은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방송통신, 문화서비스 부문이 연평균 7%의 성장률로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학적으로는 고학력, 경제력 있는 실버 문화수요층 증가가 예상되는데,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20억명으로 현재 수준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교육

과 소비수준을 갖춘 세대로서 2020년경에는 높은 사회참여와 주체의식을 가진 최대 여가소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문화중심적 사고 변화와 시민의 창조형 문화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기성취 욕구 증대로 자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문화관광상품 선호가 증가할 것이며, 문화를 창조하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 증가와 웰빙, 홀리즘, 로하스 등 지속가능한 문화형성으로 휴식, 명상, 치유 관련 문화예술프로그램 선호 증가, 친환경디자인(eco-design)수요 증가 등이 예상된다.

또한 해외이주,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면서 문화다양성 시대로의 전환과 문화다원주의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6년말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5년 내에 1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은 2005년 기준 13.6%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문화적 접변의 가속화는 필연적으로 문화의 변형과 통합·혼합화를 불러오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문화의 변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화의 원형(prototype)을 복원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 2) 다원적 국제 관광시장의 성장

국제관광시장은 2007년 국제관광객수 9억3백만명으로 연평균 성장률 4%이상을 3년 연속 상회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관광객수는 2010년 10억명, 2020년까지 16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제기여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세계 GDP 기여도는 2007년 전체 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4.8%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고 관광산업으로 인한 고용은 전세계 고용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고용에서 12명 중 1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추세에 따른 관광산업으로 인한 고용의 증가세는 2018년 9.2%까지 차지할 전망이다.

또 하나의 현상으로는 동북아시아 관광시장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을 들 수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동북아 국제관광객수는 평균 4%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2008년 1억명의 국제관광객이 동북아시아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세계관광시장의 10%

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동북아 국가들이 관광을 국가지주 산업화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2008년 국제관광객수 세계 4위, 관광수입 세계 5위를 차지하는 관광선도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마카오의 경우 2006년 국제관광객수 1천만명 달성으로 21%의 기록적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변화로는 대안관광의 부각과 신관광산업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 자연환경과 고유문화를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대안관광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UNWTO가 제시한 세계 10대 미래 관광형태에서도 해양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도시관광, 농촌관광 등을 제시하고 있어 대안관광형태가 미래 관광형태의 주요 관광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T기술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의 확대로 크루즈관광, 의료관광, 테마파크, MICE 신관광산업의 성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과 IT 기술 발달로 개별 여행객(FIT)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정보 요구량 증대와 직접 여행 계획 증가가 예상되며, 관광객의 여행 경험 증가로 관광객의 서비스 기대 수준 상승 및 소비자 지배력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21세기 자연환경 파괴와 자원고갈의 가속화에 대응한 지구차원의 환경 협력 강화 등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증가에 따라 관광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UNWTO에서는 항공 및 숙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경감 등 각국 정부의 관광산업에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의 도구로 관광산업의 위상이 증대되고 있다.

### 3) 경제기여형 국내 관광시장 성장

국민 국내관광시장 수요는 99년 국내여행 참가자수 3,301만명에서 2008년 3,739만명을 기록하여 연간 49만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관광활동 참여인구 증가, 패턴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2012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08년 전체 외래관광객 입국자수는 689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연간 8% 성장 시 2012년~2013년에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런 결과는 기존 주요 외래방문국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신흥시장의 약진에 의한 결과로서 한류의 동남아시아 확대에 따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객의 증가와 인도, 몽

골, 중동 등지의 신흥국가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결과로 관광수지가 국민해외관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7년 1,332만명을 기록하여 관광수지 2007년 100억불 적자에서 2007년 3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9년 6월까지 447만명이 출국, 전년대비 31%가 감소한 숫자로 관광수지도 2008년 30억불 적자에서 2009년 1~5월 12억불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증가할 전망으로 관광사업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광산업 고용자 수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관광산업 GDP 기여비중도 2008년 6.6%(64조원)에서 2018년 7.2%(137조원)로 증가될 전망이다.

물론 한국 고유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과 세계문화유산 등 경쟁력 있는 문화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3대 문화권 개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 관광레저도시 육성 등 국제수준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예상되는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관광에 있어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 대비 인지도가 낮고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특화된 매력물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한국인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어(관광공사, 2005),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과제다.

뿐만 아니라 2008년 WEF(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은 관광경쟁력부문 71위로 관광경쟁력 평가 관광인프라 부문이 하위권으로 숙박, 음식점, 여행사, 쇼핑, 교통 등 관광객 수용인프라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향상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광산업 구조의 영세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 외국인 투자 감소와 관광산업부문 투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의 관광인식은 세계 133개국 중 114위로(WEF, 2008)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을 생산적 생활문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 4) 녹색성장과 실용주의 정부 문화관광 정책의 변화

정부의 문화정책은 경제위기로 침체될 수 있는 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문

화·체육·관광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콘텐츠에 대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국가품격 제고 등 대두되고 있는 국정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어 녹색관광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MB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여 실질적인 성과 중시, 현실적인 적합성, 새로운 목표와 방법의 창안, 체계적인 문제인식과 해결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국정과제는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3개 전략과제를 발표하였고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중에서 문화관광관련 과제는 10개 수준으로 주요 정책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새만금 지역 국제관광단지’, ‘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이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한계와 반성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부족으로 경기 침체,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 수출은 대폭 증가했으나 일방적 한류 확산에 따라 반 한류 정서 문제 및 범정부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미흡으로 한류콘텐츠는 ‘상품’ 이전에 ‘문화’임에도 지나친 단기 수익 추구하고 경제적 접근은 현지에서 문화 침투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고 관광산업의 흑자 기초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외래관광객 안전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사격연습장 등 관광시설물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하였으나 학생선수 기초학력 신장 및 체육단체 선진화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 체육행정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문화관광 정책비전과 추진과제로 ‘더 큰 문화국가,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비전 아래 4대 중점과제 및 15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중점과제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로 이를 위한 15대 세부과제로 ‘국가상징 문화 공간 조성’, ‘창의적인 문화환경 조성’,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계층·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활력있는 콘텐츠 시장 조성’, ‘핵심콘텐츠 육성 및 마케팅 지원’,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국민관광 활성화’, ‘명품 관광콘텐츠 육성 및 마케팅 강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문화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G20 대비 문화교류 전략화’, ‘미래 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9~2013)에서는 관광비전을 동북아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부국으로 즐거운 경험,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과 관광객, 생활속의 관광으로 삶이 풍요로운 사회,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방방곡곡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위하여 관광객 150% 증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관광비전 : 동북아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부국

(즐거운 경험,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과 관광객, 생활 속의 관광으로 삶이 풍요로운 사회,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방방곡곡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 목표 : Tourism 150% Project

구 분	2001	2007	2013
관광산업 경쟁력(WEF)	-	31위	21위
한국관광브랜드(Anholt)	-	43위 / 50개국	29위 / 50개국
외래관광객(만명)	616	646	1,000
관광수입(억불)	63.7	57.5	130
국민관광참여일수	8.7	11.9	17.9
국민국내관광소비액(조원)	12.5	16.8	23.6
관광산업 고용 규모(만명)	-	88	100

이를 위한 전략으로 ‘친절·안전·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관광수요의 확대’, ‘관광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한국관광의 브랜드 가치 제고’,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 ‘산업혁신기반 구축’, ‘한국관광의 매력 창조’, ‘관광수용태세 선진화’, ‘지역관광 잠재력 육성’, ‘국민관광 기회 확대’, ‘관광을 통한 교류와 화합’을 제시하고 있다.

## II. 충남 문화·관광의 현황 및 과제

### 1) 충남 문화산업의 현황 및 과제

#### ①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자원 보유

역사적으로 충남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 2개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1,125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그 중 시도 문화재 자료가 286점, 향토유적 235점, 시도유형문화재 194점, 시도기념물 130점 등으로 지역별로는 부여가 196점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었고, 공주시 187점, 논산시 116점, 천안시 107점 등이다. 현재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 체계적인 발굴, 보존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은 백제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문화권형 특정지역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표 1〉 충남 역사문화자원 현황

문화재 구분		계	지 역 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국가 지정 문화재	계	199	16	42	10	10	11	13	0	4	7	46	5	5	9	13	0	8
	국보	33	3	16	1	3	1				2	4		2		1		
	보물	82	9	18	3	4	7	8		1		16	1	2	4	5		4
	사적	44	1	8	3	3		2		1		21	1		2	2		
	천연기념물	15	2		1			1		2	5	1	1			1		1
	중요무형문화재	7	1				1					1	1			1		2
	중요민속자료	18			2		2	2				3	1	1	3	3		1
시도 지정 문화재	계	371	19	60	19	19	14	43	2	12	8	56	13	12	20	25	38	11
	시도유형문화재	194	7	36	13	2	9	23	1	5	2	55	1	5	3	11	18	3
	시도기념물	130	12	18	5	7	4	15		4	6		7	4	10	12	18	8
	시도민속자료	19		2		9		4				1			3			
	시도무형문화재	27		4	1	1	1	1		3			5	3	4	2	2	
	시도지정문화재	1							1									
등록문화재		4										3			1			
사적 및 명승		2		1								1						
문화재자료		286	25	34	15	22	15	33	4	19	10	40	10	8	17	27		7
전래문화		19															19	
전통사찰		9					9											
향토유적		235	47	50				27		7	46	50		8				
계		1,125	107	187	44	51	49	116	6	42	71	196	28	33	47	65	57	26

또한 충남지역은 역사적 인물을 다수 배출한 지역으로 역사적 인물은 578명으로 그 중에서 조선시대 인물이 298명으로 가장 많고, 독립운동가 등 일제강점기 시대(81명)의 위인이 다음으로 많다.

지역별로는 홍성군(188명)에서 역사적 인물이 가장 많고, 연기군(95명), 보령시(56명) 등의 순으로 역사적 인물이 많다.

〈표 2〉 충남 시대별 역사인물 현황

시 대	지 역 별																
	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백제	22									1	20				1		
신라	2	1								1							
고려	43			2	2	6			4	10		8		9	1		1
고려말~조선초	9				1	1				1		3				1	2
조선	298	4	1	21	10	9	4	3	25	45		27	17	102	21	3	5
대한제국	24	1		2					1	5				15			
대한제국~일제강점기	1													1			
일제강점기	81	16	1	2			3		3	29			3	13	8	3	
일제강점기~해방후	5	1					1			1			1			1	
대한민국	4	1			2									1			
확인안됨	90			29		2				3		2	5	47		1	1
계	578	23	3	56	15	18	8	3	33	95	21	40	26	188	31	9	9

그러나 현재까지는 인물별 생가지 복원 위주의 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통한 관광화 사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② 문화기회의 저변확대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미흡

문화권 개발에 있어 법정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권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권형 특정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서천, 청양, 아산 등의 지역은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기벌포 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지역 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관광형 특정지역 사업에서 제외된 실정으로 역사문화적 차원,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해당 시군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문화권형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남에는 다문화가정으로 5,436명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는 충남 전체에 7곳으로 이들을 위한 시설마련이 필요하다.

〈표 3〉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현황

시 도	지 역	기관·단체명	주 소(연락처)	대표자
충남 (7)	아산시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시청 별관 (041-540-2972)	유선열
	공주시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충남 공주시 중동 321 3층 (041-856-0881)	궁재영
	금산군	금산문화원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041-750-3990)	김경희
	부여군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041-835-2480)	정부용
	예산군	(사)행복나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번지 3층 (041-334-1367)	최현숙
	홍성군	미정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홍성군청 복지과	-
	서산시	미정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복지과	-

충남지역 내 도서관은 총 93개가 있으며, 여기에는 문예회관 11개, 공연시설 39개가 있고 문화 보급시설은 총 47개이며, 이중 문화원이 18개, 문화의 집은 7개가 있으며, 박물관 등은 49개가 있고 영화관 15개, 미술관 8개가 있다.

그리고 극단 7개, 음악단체는 17개가 있으며, 공원/유원지/테마공원은 111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공원은 43개, 식물원/수목원은 14개, 놀이동산/테마파크는 54개소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화적 기회가 지역민 저변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이 심각한 편이다.

〈표 4〉 문화관련 기반시설

구 분		계	지 역 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도서관	계	93	24	10	2	9	5	8	2	6	7	2	2	3	4	3	2	4
	공공	17	9		1				2	5								
	대학	74	13	10	1	9	5	8		1	7	2	2	3	4	3	2	4
	사립	2	2															
문예회관		11	1	1	1	-	1	1	-	1	1	-	-	1	-	1	1	1
시민회관		6	3	-	-	-	-	-	-	-	-	1	1	-	-	-	-	-
공연시설	계	39	12	3	2	3	1	3		2	1	1	1	3	2	1	2	2
	공공	30	7	2	2	2	1	2		2	1	1	1	3	1	1	2	2
	민간	9	5	1		1		1							1			
문화보급시설	계	37	9	4	2	1	1	1	1	3	1	1	5	1	3	1	1	2
	문화원	18	3	1	1	1	1	1		1	1	1	1	1	2	1	1	1
	문화의집	7		1	1				1	2			1					1
	기타	12	6	2									3		1			

## ② 문화콘텐츠 소재 및 첨단문화산업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첨단문화산업 관련 창작소재 풍부, 국제규모의 향토축제 개최, 영상·음향기기 등의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계가 가능하고, 영상문화복합단지·영상애니메이션테마파크·영상미디어센터 등의 핵심플랫폼을 통한 장비구축 및 공간확보가 용이하며, 첨단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R&D기관이 분포되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며, 이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대학과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영상·애니메이션산업 및 관련제품의 국제화 부족, 지역 금융지원 및 사업환경 취약, 관련 사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충남이 지닌 풍부한 문화소재 발굴과 함께, 문화콘텐츠 관련업체들을 유치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 2) 충남 관광산업의 현황과 과제

### ① 관광객의 지역적·계절적 편중

충남 지역의 관광성과를 보면 서해안 지역에 비해 내륙지역 관광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충남 전체 관광객수는 2007년 충남 전체 86,58만명이고 이중 내륙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11,788,214명으로 13.6%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 서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수 565만명의 65.3%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또한 충남 관광객 행태는 여름에 서해안 해수욕장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일시적 집중에 따른 교통, 쓰레기, 수용시설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5〉 충청남도 관광객 현황

구 분	관광지수	관광객 총합계	유료관광지 관광객 수			무료관광지 관광객수
			계	내국인	외국인	
충청남도	139	86,579,170	23,225,981	22,473,924	752,057	63,353,189
천안시	5	2,999,520	2,775,692	2,760,235	15,457	223,828
공주시	18	3,497,367	3,436,839	3,387,969	48,870	60,528
보령시	10	19,410,811	630,497	622,490	8,007	18,780,314
아산시	11	7,466,965	6,471,805	5,895,158	576,647	995,160
서산시	5	3,207,575	0	0	0	3,207,575
논산시	9	1,356,490	282,752	282,158	594	1,073,738
계룡시	0	0	0	0	0	0
금산군	6	1,245,272	244,086	243,799	287	1,001,186
연기군	4	739,149	121,348	121,243	105	617,801
부여군	11	4,274,929	1,629,158	1,605,201	23,957	2,645,771
서천군	5	5,668,896	173,166	173,075	91	5,495,730
청양군	3	1,414,156	203,720	203,597	123	1,210,436
홍성군	7	2,661,954	766,166	765,861	305	1,895,788
예산군	6	7,031,249	5,706,808	5,633,964	72,844	1,324,441
태안군	35	20,880,787	579,459	574,889	4,570	20,301,328
당진군	4	4,724,050	204,485	204,285	200	4,519,565

\*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8

### ②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기반구축은 미흡

충남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공원, 관광지, 골프장,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의 다

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공원으로는 계룡산과 태안해안 등 2개의 국립공원과 칠갑산, 덕산, 대둔산 등 3개의 도립공원, 그리고 연기 고북저수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이후 보령 해수욕장지역과 아산시 온천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6〉 관광특구 지정현황

특구명칭	지 역	면 적(km <sup>2</sup> )	지정일자
계	2개지역	6.23	-
보령해수욕장관광특구	보령시 신흥동 대천해수욕장 지역, 남포면 월전리 죽도지역,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 및 석대도 지역	2.52	'97. 1. 18
아산시 온천관광특구	아산시 온천1동, 권곡동, 모종동, 득산동, 방축동지역 도고면 도고 온천지역, 음봉면 아산 온천지역	3.71	'97. 1. 18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8

온천지구는 온양, 도고, 덕산, 아산 등 16개소가 운영 또는 개발 중이고, 골프장은 5개소가 운영 중이고 4개소가 공사 중이며, 정안, 천안, 백제, West Beach, T.A.B.D, 안면도관광지, 안면도대부초지 등 7개소와 태안기업도시내 골프장 6개소, 백제역사재현단지 주변지역에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정관광지로는 전국 224개소 가운데 11.2%인 25개소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조산과 구드래관광지 2개소만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정관광지의 대부분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대체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자원부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이 12개소, 가족호텔 1개소, 콘도미니엄 8개소가 있으며, 증가하는 관광숙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10개소의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이 건설 중에 있다.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콘도미니엄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숙박시설의 분포를 보면 아산시에 11개소가 집중 분포되어 지역적 편중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기반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거점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의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관광여행사는 총 230개소로서, 국외여행사 59개소, 국내여행사 169개소, 일반여행사 2개소가 있다.

관광객이용 시설업으로는 금산 추부면에 위치한 전문휴양업과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종합온천장과 수영장을 갖춘 전문 휴양업 등 2개소가 있으며, 종합휴양시설로는 수영장시설, 야영장 등을 갖춘 천안시 수신면 소재 천안상록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관광안내시설로는 천안시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총 7개소(대전역 포함)의 상설안내소가 있으며 관광, 교통, 문화, 유적지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7〉 관광객 안내소 현황

명 칭	위 치	안내원	비고
계	7개소	22명	
대전역 종합관광안내소	대전역 구내	2	영1, 중1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부소산성 주차장내	7	영2, 중2, 일2, 일반1
천안시 관광안내소	천안역 광장	1	영1
공주시 관광안내소	공산성 서문	5	영2, 일1, 중2
보령시 관광안내소	대천역 구내	3	영1, 일1, 중1
아산시 관광안내소	온양온천역 구내	2	영1, 일1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구내	2	영1, 중1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8

### ③ 풍부한 인문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 미흡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농·수·축·특산물들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쌀과 배, 사과, 포도, 메론, 고추, 딸기, 복숭아, 수박, 버섯, 밤, 마늘, 구기자, 토마토 등의 농산물과 꽃게와 대하 등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류로 김과 술, 젓갈류, 자연, 인삼, 버섯 등의 제품이 있으나 관광상품화에는 미흡하다.

2008년 현재 충남지역 81개의 축제 가운데, 논산시가 9개로 가장 많은 지역축제를 열었고, 다음으로 공주시, 보령시가 각 8개, 계룡시, 당진군 각 6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충남의 향토문화 축제 중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성웅이순신축제 등 5개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0세계대백제전, 2011금산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충남을 알리고 매력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들이 관광상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 Ⅲ. 충남 문화관광 미래비전

#### 1) 국제화 시대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 창조

##### ①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충남의 지정 및 미지정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보존을 위한 연차적 발굴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제문화권(공주, 부여, 논산, 계룡 등), 내포문화권(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서천 등), 기호유교문화지구(논산, 계룡 등)를 중심으로 한 개성 있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문화권형 특정지역 사업,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 기벌포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주와 부여는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역사고도로 조성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충남 지역의 역사인물, 사진, 지명, 전설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역사상품화와 연계를 통한 이야기길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의 추진을 통해 충남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상품화와 지역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단기적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

##### ② 문화기회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충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 활동의 중심공간을 핵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경쟁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문화교류·창조의 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문화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으로 도시지역까지 거리가 멀고 소규모 인구가 산재해 있어 각종 서비스의 공급효율이 낮아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거의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문화의 기회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풀뿌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용자 및 재정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보다는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생활권 내 문화·예술 활동 강화를 위한 문화의 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화와 창의력과 협동심, 감성과 균형있는 지성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지역별 문화기반시설별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잠재력 있는 문화공간을 특성화된 대표시설로 육성하고 전문문화공간(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과 예술인, 단체 등을 연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시설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은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세계문화배움터, 세계명상센터 등의 건립 추진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

문화예술인과 문화향수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충남의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순수공연장은 문예회관이 전부이며, 미술관련 단체가 다른 장르의 문화예술단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전시장만 있어 창작활동을 고양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미술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며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의 계승·발전 지원책 마련 및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여 지식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폐교 등을 활용한 도예촌, 문화·문예촌, 문예전수관 등을 건립하여 창작활동 등의 문예활동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요문화시설의 정보제공을 위한 사이버 문화관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④ 지역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개발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소재의 발굴과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지식문화산업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산업 관련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공주·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 2) 지속가능한 녹색관광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 ① 미래 지향형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거점 도시별 관광자원 개발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을 백제역사문화자원, 금강 생태축과 연계한 문화·역사·생태를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지로 특화 발전시키고 도청이전신도시 중심으로 서산·홍성·당진·예산 등 내포문화관광권을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지역으로 육성하며, 보령·태안·서천의 해양관광권을 해양·연안·생태·휴양 등의 해양레저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천안·아산지역을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온천휴양권으로 특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주·논산·연기·금산·계룡을 대도시 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개발하여 충남 전체의 균형있는 관광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표 8〉 관광권역 설정 및 관광특화

구 분	범 위	거 점	부거점	개발방향
백제·금강 문화 관광권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공주 부여	논산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
내포문화 관광권	서산, 홍성, 당진, 예산	예산·홍성 (신도청)	서산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
해양관광권	보령, 태안, 서천	태안 보령	서천	안면·보령의 해양관광거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휴양관광
역사·온천휴양권	천안, 아산	천안	아산	충절의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휴양관광
대도시 근교권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	연기 (행복도시)	계룡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악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휴양·도시·문화관광

\*주 : 관광권역은 입지 및 자원특성에 따라 중복 설정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시 친환경 녹색도시 공간, 문화예술 공간 및 시설, 회의산업 등의 미래 고부가가치 문화관광기능을 도입하여 국제적 문화도시로 개발하고 아산을 중심으로 온천테마 보양·체험관광도시를 개발하여 역사·온천휴양권의 중심 거점도시로서 온천자원(Spa)과 웰빙, 보양, 미용, 관광체험요소들을 연계한 온천테마 건강·미용 관광도시를 개발하고, 온천관광지와 시내의 숙박시설·음식점, 주변 관광지들과의 연계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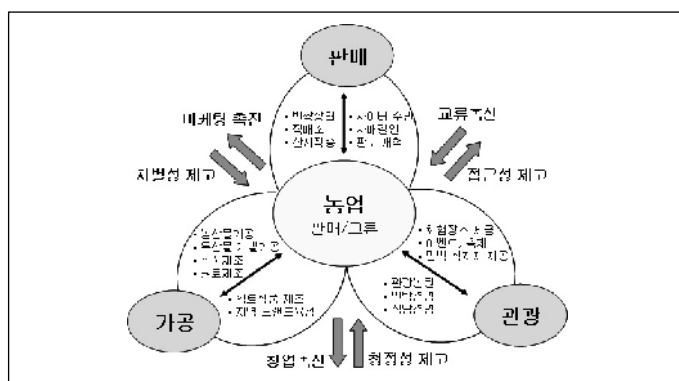
이와 연계하여 예산은 덕산을 중심으로 온천과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하고 기존 농어촌 관광마을과 재래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농·산·어촌의 판매·가공·관광을 결합하여 체험관광마을로서 녹색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제공하여 도시·농촌간 교류·공생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관광수요를 고려한 해양·항공레포츠형 위락시설 개발과 연계 프로그램 구축으로 해양수상·항공레저스포츠 기반시설로서 레포츠용 경비행장과 마리너 시설 조성하고 해변 이벤트를 개발하고, 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기반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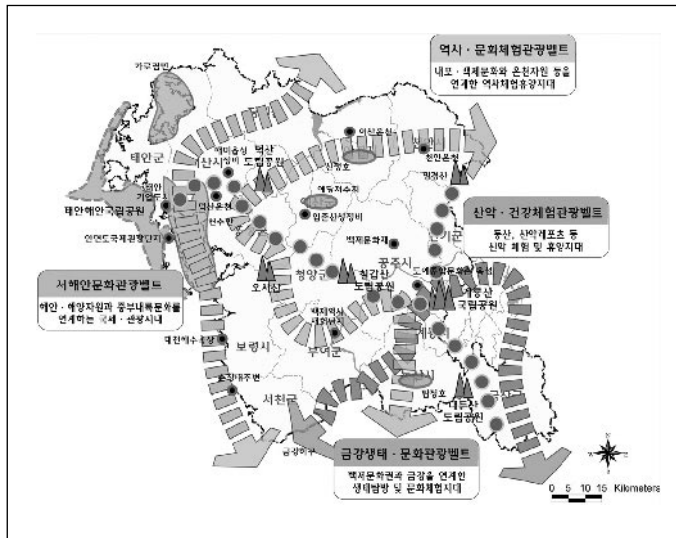


〈그림 2〉 농촌관광의 방향성

### ③ 광역적 네트워크형 관광벨트와 관광코스 개발

지역적으로 분포된 자원의 특성에 따라 서해안문화관광, 역사문화체험, 산악·건강체험, 금강녹색생태문화관광벨트 등을 조성하여 해안과 역사문화, 산악, 금강생태 등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테마자원간에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하는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적으로 해양, 역사문화, 온천 자원은 청주공항과 평택·당진항(유람선을 운행하여 다시 환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문화관광벨트로 발전시키고 해안·내륙 연계 테마관광도로를 조성하여 서해안 해안관광도로, 내륙연결 산업관광도로,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금강 관광경전철 등의 관광교통망과 연계하여 해안과 금강내륙으로 이어지는 생태자원, 철새도래지, 금강변 경관자원을 직접 경유할 수 있는 금강변 테마관광도로를 이용한 교통루트 및 이용수단을 활성화하고 백제문화와 서해안 휴양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중부 내륙 테마관광도로를 연계하여 서해안 접근성 제고와 관광산업도로 기능 강화를 추진하며 이

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해안관광도로 건설, 금강생태로 건설, 금강변 자전거도로로 조성, 관광휴양 시설 확충, 금강 자연생태탐방 도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녹색관광 실현을 위해 관광지 내 무동력 교통수단 제공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림 3〉 문화·관광 네트워크형 광역 관광벨트

#### ④ 미래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웰빙 선호관광객을 위한 유기농 식품, 웰빙 음식축제, 명상체험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역사문화 소재 원형 문화콘텐츠 상품의 지속적 개발과 판매 촉진을 통해 충남지역의 차별화된 상품의 개발과 청주공항 등과 연계한 미용, 건강 한류 패키지 구성을 통한 외국인 관광코스 상품 개발 및 관광상품화와 서비스, 관광관련 업소 등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여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⑤ 충남 관광마케팅과 시·군간 협력사업 추진

미래 관광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슬로우에 대한 요구를 충남의 이미지인 느림의 이미지를 관광브랜드로 개발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충남 관광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느

가까운 충남(Near-Chungnam)' 의미의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 충남의 홍보·관광안내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간 관광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공동 마케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U-관광도시, U-관광홍보, U-관광안내 등과 인터넷, 모바일 관광안내체계를 강화하고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와 메가이벤트의 정기 개최를 통해 충남 지역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강경젓갈축제, 홍타령축제 등 충남의 지역문화축제를 세계적 문화축제로 육성하고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세계 철새엑스포, 국제 게임엑스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정기 개최하여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군간 상호 협력적 관광자원 및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축제의 개최의 추진으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거나 상호 연관이 있는 시·군들의 협력개발을 추진하여 지역별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투자효율성 도모와 사업효과의 극대화 유도를 위해 관광지 조성 및 관광사업, 지역축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서비스 및 지역 문화관광 인력 양성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음식, 쇼핑, 안내·해설 등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관광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사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숲해설사, 생태해설사, 레포츠 지도사 등의 다양한 문화관광 인력을 단계별로 양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성진·김경태, 2009,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 관광전략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김향자, 2009, "충남 2020 비전과 전략 워크숍 - 문화관광부문",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2008, "충남관광의 과제와 발전전략", 열린충남 통권 43호, 충남발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0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7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충청남도, 2007,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충청남도, 2006,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청남도, 2008, 도정백서.  
 충청남도, 2008, 충남통계연보.  
 한국관광공사, 2008, 2007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